

## 討 論

**사 회:** 李廷玟선생께서 그동안 complementation에 대해 시도된 기술방법에 대해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본격적으로 complementation에 대해 시도하신 분이 李鴻培선생님이신데 먼저 李선생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당시 취했던 기술방법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다던지...

**이홍배:** Complementation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일찍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에 나온 제 글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논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말에 NP complementation과 VP complementation이 둘 다 있는가, 그 다음에 complement sentence는, 어떤 head noun이나 영어에서 Rosenbaum이 한 것처럼 *it*와 유사한 것이 있으면서 NP의 지배(domination)를 받는가? 아니면 홀로 지배(domination)를 받는가? 또 complementizer를 심층구조(deep structure)에 넣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변형규칙(transformational rule)에 의해서 삽입해야 하는가?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남기심 선생과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complement sentence의 어떤 sentence ending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이따가 물론 양인석선생과 박병수선생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구문을 양선생님은 relative clause라고 하고 박선생님은 complement structure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면 훨씬 낫겠습니다만. 이러한 견해차가 있는 것도 가령 많은 분들이 “나는 가고 싶다”라든지 “살게 되었다”라든지 할 때 verb phrase를 complementation으로 취급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NP complement로 취급하는 것이 좋은가 VP complement로 취급하는 것이 좋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deep structure의 node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 회:** 이정민선생께서 문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complementizer를 deep structure에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홍배선생이 했듯이 나중에 변형규칙에 의해서 삽입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홍배선생과는 반대입장에서 deep structure에서 결정하신 남선생님께서....

**남기심:** 양선생님과 저는 같은 입장에 선 것 같습니다. 우선 complementizer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몇가지 이정민선생이 지적하고 이홍배선생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한다”할 때의 *고*라든가, *것*등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가 complementizer의 종류를 여러가지 들었습니다. 아, 어, 게, 지, *고*가 다 complementizer이고 여기에 *음*, *기* 하는 명사형을 형성하는데 쓰는 것이 다 complementizer로 들게 되고 또 지금까지 국어문법에서 전통적으로 형식명사로 취급되던 *것도* complementizer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민선생이 말씀하신대로 이홍배선생은 변형규칙에 의해 삽입하는 것으로 보셨는데, 저는 이런 complementizer 사이에 분명한 의미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가지고 이것은 deep structure에 주어저야 하지 않겠는가 변형규칙에 의해 삽입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들 사이의 의미상의 차이를 규명할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것*, *음*, *기*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통사적으로도 동사와의 배합이 다르다는 것이 이맹성선생의 논문에서도 이미 지적이 있었고 여타의 complementizer하고 제가 취급한 소위 완형보문자 “~한다고” 하는 *고*하고는 분명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는 그 앞의 보문(補文: complement sentence)에 의해서 진출될 바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데 비해서 여타의 *것*, *음*이나 *기*의 경우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커다란 의미상의 차이는, 이런 complementizer가 심층구조에서 주어저야 한다는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고, 그 점은 양선생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사 회:** 심층구조에 있어야 한다는 양선생님의 입장과 관련해서, 박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박병수:** 저는 이홍배선생이 먼저 제시하셨던 질문 중에서 첫째 질문을 우선 문제로 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말에 NP complementation과 VP comp-

lementation이 둘 다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체이긴 한데 저는 두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NP complement와 VP complement가 둘 다 있느냐 하는 것이 문체라기 보다는 complementizer가 양쪽에 다 있느냐 이게 오히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사형어미 같은 것을 정말 VP complementation에서 complementizer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구요. NP complementation 그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 것은 이미 대답이 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근원을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아까 잠깐 남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것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것을 영어의 infinitive phrase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꼭 complementizer라고 본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가 올 것을 안다”할 때 예컨대 영어로 직역해서 “I know his coming” 같이 되겠지요. 그때 Poss-ing complementizer 인데 그것하고 “올 것”할 때 것을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본 데서 NP complementation인지 VP complementation인지 그 자체도 분명치 않게 돼요.

사 회: 그러니까 complementizer가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인 데서부터 다시 회의라고 할까,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을 것” 할 때 박선생님 같으면 것이 어떻게 complementizer이냐, 영어의 Poss-ing, to infinitive, that 같은 데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오히려 앞에 있는 ~을 하는 관형사형 같은 것이 complementizer로 되지 않는가? 제가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흥배선생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흥배: 글썽요. 을, 는을 complementizer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relativization할 때에 나타나는 것과 아주 유사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 사람, 온 사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이와 같이 나타날 때 양동휘선생님 같으면 다른 relativization에서도 complementizer를 넣는 형식을 택해주셨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가 “갈 사람, 온 사람, 오는 사람” 할 때에 을, L, 는, 을 comple-

mentizer로 보아야 하느냐 relativizer로 보아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relativizer가 complementizer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 생기겠지요, 대개의 경우 많은 분들이 불구명사에 대한 것은 취급을 안 했는데 불구명사라 보았을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명사니까 뒤따라오는 것의 변화가 생긴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relativizer나 complementizer로 보지 않고 다른 데서 해결을 찾으려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 회: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양선생님께서 아까 이정민선생이 지적한 예처럼 “좋아하다” “좋아할 하고 싶다”에서 아, 고, 게 등 소위 부사형 어미들을 complementizer로 취급한 의미에서는 박병수선생의 입장과 비슷할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양인석: 제가 complementizer를 취급한 것은 근본적으로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tree diagram을 크게는 NP로 보고, 다음에 세분해서는 feature에 따라 VP-comp, NP-comp으로 나타낸 것이지요. 그럼 VP-comp으로 나타내고 compound verb를 만드는 아, 게, 고, (고도 나가지죠) 이런 것은 VP-comp으로 보고 음, 기, 것 또 인용형 고는 NP-comp feature로 세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크게 NP로 본 것인데 그 이유는 제가 case marker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뒤에 delimiter를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systematic derivation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Rosenbaum식으로 VP, NP complementation을 취급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 당시 1967년에 나온 Partee, Schachter, Stockwell씨 사람이 쓴 UCLA syntax에서 입증이 되었지만 VP, NP complementation구분의 증거가 영어에는 없으니, 보편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회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 NP로 보되 sub-feature를 써서 구분한 것입니다. 그다음 complementizer가 심층구조에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영어뿐 아니라 14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우리말에서도, 모든 것은 같은데 complementizer가 다름으로써 의미차이(semantic difference)가 오니까, 그 책임을 complementizer에 돌려 심층구조에 넣어본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좀더 연구할 문제인데, complementizer에게만 책임지울 수 있는가, 오히려 그

embedded sentence에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넣는다면 어디에 붙일 것인가 이런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한 가지 방법으로 complementizer에 짐을 지워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박병수 선생이 말씀하신 을, 를은, 그 당시 저로서는 comp라는 개념도 생각지 않았는데, 오준규선생처럼 relativizer로 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relativizer나 complementizer가 아니라 embedded sentence의 modality부분을 tense carrier를 중점으로 해서 그것이 변형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 자체를 complementizer나 relativizer로 본다면 embedded sentence에서 modality를 전부 떼어낸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embedded sentence에서 modal이 될 수 있는 “하는 것, 할 것, 한 것” 등에서 tense carrier가 세개나 있으니까 그중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없어지는가는 modality의 문제이고 아무튼 이것은 embedded sentence의 modality component이니 도저히 complementizer로 볼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박선생님과과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 회 :** 남선생님께서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남기심 :**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관형사형어미 “하는 사람, 하던 사람, 할 사람” 할 때에 ㄹ, ㄴ, 는 등이 relativizer나 complementizer나 혹은 modality가 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가 있거든요. 우리가 천자문을 읽을 때 “갈 去”, “푸를 靑” 할 때의 ㄹ이 라든가 회전축같은 것을 “돌대” 한다든가 “테릴사위” “떨 나무” 할 때의 ㄹ 같은 것은 modality carrier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relativizer나 무슨 다른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예가 있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모르지만 그러한 modality carrier에 그러한 기능이 겹쳐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양인석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선생이 지적하신, VP complement에서 “가고를 싶다”도 되고 “가고가 싶다”도 되니 이상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싶다는 일본말의 たい동과 같이 volitional verb로 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말에서 accusative reflection으로 accusative intrusion이 있거든요. 그

러니까 “나는 영자에게 빵을 주었다”, “나는 영자를 빵을 주었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게를 ㅄ로 reflexive시킬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가장 강한 case marker가 ㅄ인데 동사에서 “를 싶다”하면 비슷한 거지요. 그것은 ㅄ에서만 가가 되니까 special case로 양쪽이 free variation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의미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더 연구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반증은 되지 않습니다.

**사 회 :**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은데, 특히 마지막 양인석선생이 관형사형어미에 대해서 modality로서도 취급 가능하며 relativizer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미비한 점은 다음 relativization에 대한 토론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 Relativization

**사 회 :** 발표하신 내용중에서 relative clause가 head noun의 앞에 오는가 뒤에 오는가 하는 문제와 관형사형 즉 relativizer로도 볼 수 있고, modality carrier라고도 볼 수 있는 ‘를’ ‘은/는’ 또는 tense의 ‘았/었’ 같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축점을 topicalization에 두어 Kuno의 가설을 따른 이정민선생의 방법과 이에 반대하는 양동휘선생의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를 해 보죠.

**이정민 :** 먼저 제가 topicalization을 거쳐서 relativization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relativization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 대해 ‘자기’를 rule에 의해 뽑다보니까 topicalization과 relativization의 관련성(relatedness)을 입증하는 좋은 예가 나왔어요. “자기를 아는 여자가 그 남자를 죽였다”할 때는, ‘자기’가 ‘그 남자’하고 coreferential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자기가 아는 여자가 죽인 그 남자”하고 relative head로 ‘그 남자’가 올 때는 정확하게 coreferential해집니다. 이것은 “그 남자는 자기가 아는 여자가 죽였다”할 때 topicalize된 position에서 coreferential되는 것과 같은 사실입니다. 이런 관련성을 보여주는 더 복잡한 예는 제 논문(197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topicalize해서 relativize하는 과정을 거칠때 좀 더 이러한 관련성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는 가정을 했습니다. Kuno인지 McCawley인지 모르지

만 topic하고 topicalize된 noun construction을 심층 구조에 두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relativization의 중간단계로 process를 보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John”할 때, 자기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John이 생각할 때 ‘자기’가 John이 되나, 남들이 하는 얘기일 때는 coreferential하지 않습니다. John이 그렇게 생각하면 “John은 John이 John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한다”니까 John, John, John의 딸 셋이 겹쳐 나옵니다. 맨 위의 topicalize된 John이 맨 앞의 John을 delete시켜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subject position에서 reflexivize해주는(‘자기의 딸’)과정입니다. 그러니까 topical position에서 이것을 reflexivize하는 단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홍배** : 양동휘선생도 topicalization과 relativization이 많은 syntactic constraint를 공유한다는 것을 논문에서 인정했읍니다. 저는 topicalize가 안 되는 것이 반드시 relativize가 안되느냐등 여러문제에서 양동휘선생과 의견을 같이하기도 하고 달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보통 ‘는’을 ‘-다는’, ‘-고 하는’이 줄었다고 보는데, 양선생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변형에 의해 삽입된 complementizer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기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John”할 때 ‘-다’까지 주장한 것이 John 자신이 주장한 것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없읍니다.

**이정민** :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John은’ 할 때 topic marker하고 John앞의 ‘는’하고 Indiana에서 syntax course를 할 때 (1969) 동일시했읍니다. 직관적으로도 ‘John은’ 할 때 ‘은’하고 ‘죽었다는’의 ‘는’이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John뒤에서 relative clause를 prepose한다는 주장도 그러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support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 양동휘선생께서 말씀해주시지요.

**양동휘** : complementizer가 심층구조에 있느냐, 없느냐, relativization에서 S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하는 논쟁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논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linguistic generalization을 catch할 수 있느냐 하는데에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relative clause가 앞에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보다 큰 generalization을 얻기 위한 과정 속에서 relativization을 다룬 것입니다. 저는 Kuno의 해석을 버림으로써 더 큰 generalization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Kuno의 가설이 틀린 것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좀더 포괄적인 generalization을 얻고자 했읍니다. 제 논문의 한가지 부분만을 갖고 argument를 하게 되니 당황케 됩니다. 논문 전체의 맥락에서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면 좋겠읍니다.

저는 ‘는’을 complementizer로 보았는데 그렇게 새로운 이론은 아닙니다. Perlmutter는 영어의 that가 관계대명사도 되고 동격절의 complementizer도 됨에 대해 내 논문 쓰기 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국어도 영어에서와 같이 동격절에 ‘는’이 나옵니다. ‘내가 아는 사실’할 때 ‘는’은 relativizer지만 ‘내가 그를 만났다는 사실’할 때 ‘는’은 의미적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분명히 complementizer입니다.

**이홍배** : 그때의 ‘는’이 아니고 ‘산 책’할 때 ‘사았’에 ‘는’을 넣었으니 peculiar하다고 한 것입니다.

**양동휘** : ‘사+았+는 책’에서 ‘사+았+는’→‘산’이 되었다고 대충 얘기했는데 outline은 될 것 같습니다.

**이홍배** : ‘는’이 NP complementizer라는 얘기는 있어도 ‘는’이 거기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는 논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동휘** : ‘는’을 기능상으로 보면 영어의 relativizer와 비슷하지요.

**이홍배** : 그건 그렇죠, ‘안 사실’은 ‘알았는 사실’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정민** : ‘는’을 ‘을’ 등과 묶어주는 하나의 arch segment로 봐두면 하나의 요소로 집어넣어 relativize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홍배** : 틀렸다고보다 peculiar하나는 얘기입니다. 양선생님께서는 topicalization과 relativization이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가지 성격을 공유(share)하기도 한다등을 얘기했지만, 아까 Kuno가 지적한 counter example들 중에 동의한 것도 있고 인

한 것도 있습니다. 양선생님이 뒤에 McCawley의 argument가 untenable한가 할 적에는 아까 제시한 문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이에 대해 양인석 선생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양인석: 듣는 중에 생각한 것도 있고 논문에서 쓴 것도 있는데, Kuno가 말하는 thematizability 하고 relativizability hypothesis에 implication을 두었습니다. 제가 우리말에 적용해보니까 counter example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foot note (p. 277)에 넣고 넘어갔는데, 이정민선생하고는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다음 S가 앞으로 오느냐 뒤에 오느냐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얹고 natural order로서 S+NP로 본 거죠. 그 다음 제한적, 비제한적 relativization에 대해서는, definite하다고 해서 제한적인 것이 못되느냐 해서 반대를 한 거죠. 제한적인 것도 sense, reference 등 모든 의미로 본다면 제한적인 것이다 라는 점에서 반대를 제기합니다. 양동휘 선생처럼 하면 focus가 다르지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던 중의 side argument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말이 없어지겠죠.

양동휘: side argument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S가 영어와 반대로 앞에 오면 pronominalization, reflexivization에 이상한 constraint가 생긴다는 것을 포함해서 세가지 argument를 얘기했습니다. Bach의 *Syntactic Theory*에서 뒤에 substantial universal의 하나로 relative clause가 아마도 세상의 모든 언어의 심층구조에서 head NP를 뒤따르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필요에 의해 그런 argument를 했는데 Bach는 독자적으로 그것을 universal한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 argument에 도움을 주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사 회: 다음에는 청중석의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기용: restrictive relative clause와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의 특색중의 하나가 John과 같은 고유명사는 restrictive relative clause의 head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아까 다룬 예문에는 John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John을 지적해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 질문

입니다. 다음은 S를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에 놓는다면 determiner를 S+Det+N처럼 사이에 놓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그 사람"에서처럼 '그'를 가운데 놓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argument들이 대부분 transformation에 어떤 짐을 지워주느냐 하는데 주로 관심을 둔 것 같습니다. deep structure의 역할이 semantic representation이라고 가정하면, 앞에 놓으나 뒤에 놓으나 별 상관 없다고 할지 모르나 이 문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사 회: John이 고유명사인데 restrictive relative clause의 head로 쓰인대 대해서, deep structure는 semantic representation이라는 입장에서 다른 각도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양동휘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양동휘: 영어식으로 말하면 John이 고유명사니까 restrictive하게 쓰일 수 없죠. 그 예가 한국어에서도 계속적 용법이나 아니면 한국어에서는 그런 영어의 restriction이 없느냐하는 문제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서의 restrictive relative clause와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의 정의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만, 저는 한국어에서 그 둘 사이의 구분이 명백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홍배: 그점에 대해 이정노선생이 약간 얘기했는데 다음 예와같이 쓰이면 우리말에서는 항상 restrictive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파티에 온 사람은 누구든지 술을 못마신다"할 때 영어의 항상 restrictive relative clause를 갖는 anybody, everybody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는데' '—왔는데' 이런 것은 영어의 non-restrictive relative clause와 흡사한 것 같다고 주장된 것으로 압니다.

양동휘: 그것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영어에서 restrictive와 non-restrictive의 차이는 form의 차이와 일치하는데, 우리가 다룬 예에서는 의미적으로 봐선 분명히 non-restrictive이고 형태상으로 봐서는 restrictive와 다를 바가 없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 회: 두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the가 없긴 하지만 여러 John중의 하나라면 restrictive

이고 그렇지 않으면 non-restrictive이겠지요. 다음은 변형규칙의 부담과 semantic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이정민선생께서...

**이정민** : 그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underlying structure 혹은 변형에 어떻게 짐을 지우는가 하는 것에 모든 문제들이 달린 것이니까 말입니다. Shaumjan은 underlying structure에서 모든 element들이 순서없는 universal base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head noun과 S를 순서지을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 correspondence rule에 의해 갖다 엮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John의 뒤에 S를 놓으면 S-preposing이라는 십자가를 저야되고, topicalize해서 reflexivize하여 '자기'를 꼬집어낸 다할 때는 topicalization이라는 십자가를 transformation이 저야 합니다. 순서 없는 underlying S는 transformation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해야되고, 순서지워진(순서지워졌다는 것은 벌써 surface를 의식한다는 얘기) underlying structure에서는 변형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것은 서로 비례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얼마큼 추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요.

**양인석** : 이기용선생이 질문한 제한적 비제한적 관계절 문제에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는데'는 비제한적으로 '한 John'할 때는 제한적으로 나누었는데, 영어에서는 definite한 것은 고유명사로 딱 정해져 있기때문에 specify할 수 없지 않느냐하는 argument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제한적이란 무엇이나 하는 것인데, definite하는 것이 제한적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expression에 있어서 sense가 specify되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본다면, 고유명사도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보

다 더 specify해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것도 제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는데'와 몰아붙인 표현이 있는데 이들은 분명히 intention도 다르고 implication도 다릅니다. 그래서 설정했지요.

**사 회** : 마지막으로 청중석에서 한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남용우** : 지금까지 우리말의 관계화에 대해 들었는데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하나의 날 말로 있고, 그것이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non-restrictive다 또는 restrictive다 분간하기 쉬운데 우리 우랄알타이말에서는 접속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며, 관계대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우리나라말의 특징이라고 하는 분이 많습시다. 지금까지 얘기에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지적한다면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는지, 우리말에도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지요.

**양동휘** : 관계대명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관계대명사가 무엇인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relative formation의 T-rule이 embedded S에서 identical NP를 pronominalize해서 나간(move)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vement가 없다고 보면 관계대명사는 없는 것이고 최현배선생님의 관계대명사는 그 문법에서 얘기할 내용입니다. 저는 명시적 관계대명사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바'는 변형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head noun이 되겠죠. 옛날 사람들의 얘기는 서로 frame이 다르니까 우리하고 다르겠지요.

**사 회** : 오랜시간동안 열심히 토론해 주시고 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하겠습니다.